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 형 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지금 대다수 여론조사 문항의 답들은 대략 80대 20 정도로 나뉜다. 20퍼센트가 채 안 되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연일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단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집단과 그 집단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80이 20(중의 일부)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의견으로 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검찰과 특검은 물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거의 모든 언론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정한다. 그들은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믿는다. 대통령 주변의 일들을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충분히 가질 만한 이런 의문을 그들은 외면한다. “억울한 사람이 왜 피하는가?” 억울한 사람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자리)일 것이다.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마다한다면 ‘억울함’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법 제도와 모든 언론이 열정적으로 제공하려 한 그 기회를 전부 거절하고 어느 인터넷 방송국 진행자를 독대했다.

온 세상이 함께 검증한 사실도 부정하고 명백히 의심스러운 것도 외면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정신병리학 차원에서 보면 망상(delusion)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는 ‘대통령과 우리는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식 이니까 피해망상이 되겠다.

의학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변 사람이 아무리 그 잘못을 지적해도 교정

되지 않으며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망상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환자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을 ‘피해망상 증 환자’로 규정하고 대화를 포기하면 그만일까? 그리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면서 그 유혹에 저항하려 애쓰고 있다. 그 대상이 누구건 어떤 이들을 간편하게 ‘구정’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내가 본 것은 서울 시청 광장에서 노숙하며 태극기 농성을 하는 분들의 인터뷰였다. 세상의 모든 언론에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계엄령의 필요성까지 역설할 때, 그들의 어조는 분명 분노에 차 있었지만, 그 순간 그들에게서 내가 감지한 정서는 어떤 벅찬 총만감이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살 맛 나는’ 시간을 보내는 중인, 삶의 입맛을 되찾은 이의 에너지였다.

애초부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이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누구나 무엇을 이용한다. 공허한 삶을 ‘의미’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용할 무엇이 필요하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을 할 때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삶은 얼마나 총만해지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태극기 집회는 정치적 저항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축제일지도 모른다.

김현경의 책 ‘사람, 장소, 환대’에 따르면 ‘인간’과 ‘사람’은 다르다. 인간은 그냥 ‘자연적 사실’의 문제이고 사람은 ‘사회적 인정’의 문제라는 것. 한 ‘인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그의 이들을 불러 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

우리 사회가 장년층·노년층을 사회적 인정의 장에서 배제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삶의 의미를 생산해 내는 거대한 발전소를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지만 할까. ‘사회적 인정’의 영역에서도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 날들이다.

기 고



권 은 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대기업과 서울은 물론이고 광주지역 경제까지 타격이 미치고 있다. 다음 달 1일 광주 프리지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중국 광장무(廣場舞)를 선보일 관광객 1000여 명 방문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됐지만 크고 작은 대 중국 수출도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내외적 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 경기침체를 빌미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대기업 횡포 속에 대기업 지역공장들의 해외이전까지 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매출 감소 등 현상의 어려움은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2년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7.2% 증가한 것에 반해 국

새 봄, 새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내 설비투자는 4%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4배나 더 빨리 증가한 것은 대기업 지역공장들의 해외이전이 한 몫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해외이전이 본격화되면서 2011년 세탁기, 2013년 청소기와 냉장고, 지난해 1월에는 김치냉장고까지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설 자리가 매년 좁아지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조사한 ‘2016년 4분기 광주·전남지역 대기업협력업체 경영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원사업자) 거래 및 동반성장 여건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3%, 자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4%로 나타난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가늠할 수 있다.

조사에서는 대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대응방향으로 ‘유류설비 매각,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역경제 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자금제 마련과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현재 중소기업

들은 ‘신사업진출 등 업종전환’, ‘수출 등을 통한 판매처 다각화’, ‘브랜드화를 통한 직접 판매’ 등을 통해 자체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미션들이다. 사실 중소기업 활성화는 대기업이 경제생태계를 독식하고 있는 한국경제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지역국회의원으로서 고민이 깊어가는 대목이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한데 맞했다. 각 상임위별 역할을 한데 모아 지역사회를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모아보기로 뜻을 같이 했다. 바로 광주발전 프로젝트 ‘드림팀이 간다’다. 국회의원별 지역구 문제가 아닌 광주현안에 대해 지역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다. 우선 시장에서는 경제와 교육, 청년일자리, 살기좋은 환경을 위한 노인복지 등 4가지를 최대현안으로 선정했다. 순차적으로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에서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필요하면 국회의원에서 법률마련이나 개정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현안을 돌파해 나가보자는 것이다. 시안이 큰 경우는 대선정책에 반영하는 등 전국상황으로 이끌어내 광주발 지형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원대한 포부이기도 하다.

지난 8일 선보인 광주발전프로젝트 ‘드림팀이 간다 1탄’은 그 첫 무대였다. 드림팀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및 각 계의 전문가들과 현장을 탐방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전·식품·광기술 분야에 대해 자체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살피고, 브랜드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브랜드개발에 목말랐던 중소기업의 목소리 감응을 해소하는 한편, 관련 기업체 및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광주지역의 명품공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과정으로 자체 성장을 도모해야 했던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지권이 각계 전문가 집단과 힘을 모아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수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한다면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당 광주발전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등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성공적 사례가 되길 바란다.

社 說

역사적인 탄핵 심판 선고 이젠 갈등 끝내야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 가결 후 석 달 만에 심리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탄핵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은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뇌물수수과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비롯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넘기고 최 씨를 위해 권력을 휘두른 사실도 드러났다.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대선 특혜를 줌으로써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현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집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년 넘게 끌어온 혼란이 현재의 역사적 결정으로 속속히 수습되었으면 한다. 대통령 측근은 술한 짚수로 현재 심리와 특검 수사를 방해했지만, 결국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몸통임이 확인됐다. 따라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은 민심이 상식이다.

오는 현재 재판관들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제 온 국민도 이성적인 자세로 탄핵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다. 특히 여야 정차권은 대선 유·불리란 따질 게 아니라 현재 결정이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여전하다니

광주 지역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광주여성노동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259건이었다. 이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은 5.4%인 14건이었다.

성희롱은 주로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주로 입사 1년 미만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피해 상담자 중 42.8%(6건)는 직장 상사를 가해자로 지목했으며 이어 사업주 35.7%(5건), 고객 14.3%(2건), 동료 7.2%(1건) 순이었다. 성희롱 유형은 신체 접촉, 언어 폭력, 시각적 폭력 등 복합적이었다.

여성에 대한 성 차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안이 49건 (64.4%)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정년·해고(6건), 교육·부서배치·승진(2건),

임금 등 차별(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지역 사회의 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하다. 김용미 광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간사는 “현재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장이 많다”고 밝혔다.

두 말 할 것 없이 직장 내 성희롱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과 성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인권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라는 각성도 필요하다. 수직적·권위적인 직장문화에서 벗어나 여성 근로자가 누군가의 어머니, 누이이고 딸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적인 사고도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하는 남성중심주의 사회는 미래를 기억할 수 없다.

無 等 鼓

“우리 국민은 문맹자도 많고 경제 자립도 어려워 일본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중략) 나는 민족을 위하여 친일할것. 내가 결은 길이 정경대로는 아니오마는 그런 길을 걸어 민족을 위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소.” 대한민국 재한국회가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설치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1949년 2월 전격 체포, 특별재판부 법정에 세운 친일반민족행위자 ‘춘원 이광수’의 최후진술이다.

문학가여서 그런지 이광수는 부끄러운 친일을 교묘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 ‘친일은 했지만 민족을 위해서’라는 건데, 지금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비교하면 어딘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실제로 반민특위 활동 당시와 촛불 집회가 벌어지는 지금의 시국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는 삼권분립에 위반되고, 안보 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며 특위 활동을 견제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통령의 입장에 고무된 친일 세력

은 특히 관계자들을 알살하려 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특위 사무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며 친일파 처단 활동을 방해했다. ‘최순실 사태’를 조사 중인 특검의 활동과 헌법재판관들의 소신 판결을 위축시키려는 온갖 술수들과 겹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해방 이후 친일 잔재를 청산하려던 반민특위 활동은 결국 미군정의 엄호 아래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친일 세력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비협조와 방해로 좌절되면서 무너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실패했다.

선각자 단체 신재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설파했다. 잘못된 역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들에게 친일파 육당 최남선의 최후진술을 들려주고 싶다. “까마득하던 조국의 광복이 뜻밖에 열린 실현되어 이제 민족정기의 호령이 광광히 이 강산을 뒤덮으니 (중략) 오직 공손히 법의 처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책책을 감수함으로써 조그만치라도 국민 대중함에 침회의 표시를 삼는 것 외엔 다른 것이 없다.” /홍형기 사회부장redplane@

반민특위

종교칼럼



원 독
선목사 주지

최근 몇 주간 주말엔 봄, 주중에는 겨울 추위가 느껴지는 가운데 절 뒷마당에는 이미 매화가 가득 피었다. 겨울을 움켜쥔 들 오는 봄을 어찌 막을 것인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는 사사로움 없이 모든 것에 두루 작용한다. 매화는 좋고 겨울은 싫다고 하면 사사로움 없는 변화의 진리 앞에서 헛되이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다. 저 매화꽃이 열음을 어찌 장담할 것이며, 다시 겨울이 돌아올 때 얼마나 괴로우랴.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꽃이 피니 좋고, 꽃이 시들여가니 좋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니 좋고 이렇게 삶이 깊어져가니 좋고, 몸이 짐스러울 때 떠나니 좋다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좋고 고맙다고 수용할

페미니스트 붐다

때 우리 삶은 보다 평화롭고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붓다시여,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은 영혼이 없는 존재이거나 업장이 두터워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성은 수행을 하더라도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니까?”

“오, 좋은 벗 아난다여,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도 훌륭한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 거룩한 삶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붓다시여, 그렇다면 여성들이 거룩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그동안 불가촉천민과 노예계급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계급 없이 서로를 좋은 벗으로 부르면서 평등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여성들은 천민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이 거룩한 삶을 성취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벗 아난다여,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동체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제안해

주십시오. 나는 한 달 전 가필라에서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자고 공동체에 제안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이 곳 웨살리리로 한 달 동안 걸어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부결된 안건을 같은 사람이 다른 지역의 수행공동체에서 제안하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으니 그대가 역할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2600여 년 전, 인도 사회는 신을 섬기는 바라문교가 사회를 지배했고, 신의 이름으로 억압적 사회제도를 만들고 유지했는데, 그 제도에 따르면 하층 계급과 여성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데 붓다는 하층 계급과 여성이 인격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당시 사회의 최상층인 종교인이 되도록 출가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가톨릭은 아직까지 여성 성직자가 없고, 개신교는 최근 들어서야 일부에서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외쳤던 것이 불과 70년 전의 일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이며, 혁명적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야말

로 인류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지난 수요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그보다 이른 지난 일요일은 석가모니 붓다의 출가 기념일이었다. 출가는 자신을 같은 사람이 다른 지역의 수행공동체에서 제안하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으니 그대가 역할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2600여 년 전, 인도 사회는 신을 섬기는 바라문교가 사회를 지배했고, 신의 이름으로 억압적 사회제도를 만들고 유지했는데, 그 제도에 따르면 하층 계급과 여성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데 붓다는 하층 계급과 여성이 인격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당시 사회의 최상층인 종교인이 되도록 출가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가톨릭은 아직까지 여성 성직자가 없고, 개신교는 최근 들어서야 일부에서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외쳤던 것이 불과 70년 전의 일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이며, 혁명적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야말

로 인류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지난 수요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그보다 이른 지난 일요일은 석가모니 붓다의 출가 기념일이었다. 출가는 자신을 같은 사람이 다른 지역의 수행공동체에서 제안하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으니 그대가 역할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